

막힌 배수로 방치...수년간 논 침수

농촌공사, 배수관 교체 공사도 지연 광주시 남구 양촌동 농민들 큰 피해

한국농촌공사와 남구청이 상습 침수구역인 광주 남구 양촌동 일대 논 배수시설을 수년간 방치해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4일 광주에 내린 46mm의 비로 광주 남구 양촌동 일대 논 1만3천㎡가 침수됐다.

주민들은 침수 원인으로 길이 1km 가량의 노후화된 배수로를 지목했다. 폭 2m, 높이 1.2m의 이 배수로는 만들어진 지 수십년이 지난데다 적체물이 계속 쌓여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적체물의 경우 해마다 배수로 청소 작업을 하면서 치우야 하지만 인근에 비닐하우스가 많아 굴착기 등을 동원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방치돼왔다.

더욱이 인근 대촌동 화산배수장도 양촌동 배수로에서 물이 빠져 들어와야 하지만 다소 높은 지역에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년동안 침수가 되풀이 되자 주민들은 농촌공사와 남구청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예산확보가 어렵고 배수로 청소를 하기 어려운 지형이라는 이유로 계속 미뤄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께 3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배수로 정비를 추진했던 농촌공사는 배수관 크기가 작다며 주민들이 반발하자 공사를 연기,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농촌공사측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배수관 설치 관련 주민회의에 참석했던 김공수(59)씨 주민들은 "담당 공무원과 회의를 통해 '이곳의 수압이 센 만큼 큰 배수관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배수관을 해

야 한다고 건의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하지만 공사 당일 0.8m·0.7m의 배수관을 설치하려고 하자 주민들이 항의해 공사를 연기시켰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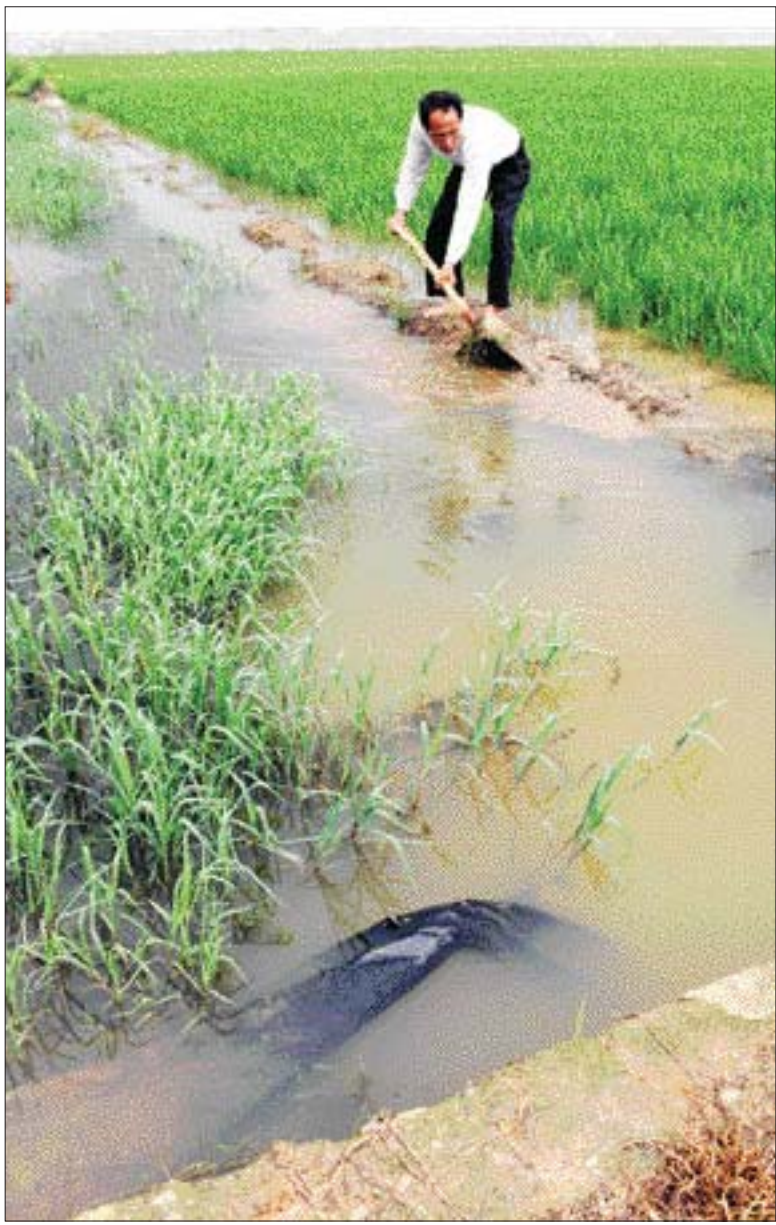
이 때문에 농촌공사는 수 역원을 들여 구입했던 배수관을 반납할 수 없어 인근 화장동 마을 배수관을 대신 교체했지만 남은 배수관 200여개는 마을 한 쪽에 방치해둔 상태다. 이들 배수관은 방치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일부는 깨지고 부서지는 등 관리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농촌공사 관계자는 "배수로 공사 설계 전에 주민들과 만나서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다"며 "더 많은 곳에 배수관을 교체해주기 위해 작은 배수관을 만들었지만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 연기했을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농민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4천여㎡ 논을 경작하고 있는 서모(51)씨는 "5년 전에 샀던 논인데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이 넘쳐 잡기는 바람에 나락이 제대로 크지 못해 수확량이 다른 논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며 "남구청과 농촌공사, 동사무소에 수차례 건의했는데 배수로도 한 번 청소해 주지 않더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오는 9월께 4억5천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3km 구간의 배수로를 교체하기로 했으며, 화산배수장 재건축도 농림부에 건의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광명기자 kps@kwangju.co.kr



광주 남구 양촌동 논에서 한 농민이 배수로를 정비하고 있다. 이 마을 배수로는 적체물이 수년동안 쌓여온데다 배수관마저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해 상습 침수되고 있다. 아래는 방치된 배수관.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23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조성 범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 직후 박광태 시장과 이승기·안희옥 추진위 공동위원장 등이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를 기후변화대응 선도 도시로”

범시민추진위 출범...온실가스 감축 운동 전개

광주시를 기후변화대응 선도 도시로 만들기 위해 민간과 행정의 손을 맞잡았다. 지구온난화로 각종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을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킬 것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광주시는 23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범시민추진위)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박광태 시장과 추진위 위원, 시민·환경단체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범시민추진위는 광주시와 경제계, 학계, 종교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의회 주요 인사 70명으로 구성됐으며, 공동위원장은 이승

기 광주상의 회장과 안희옥 광주YWCA 사무총장이 추대됐다.

참석자들은 출범 선언문을 통해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사회적 갈등과 지역공동체의 건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민캠페인 등 에너지 시민운동 전개 ▲소속 기관·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사업 1가지 이상 자발적 추진 ▲온실가스 감축을 전 시민운동으로 확산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한국은 탄소배출 세계 7위, 석유소비 세계 9위국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광주가 지구촌 환경문제를 앞장서서 해결

한다는 각오로 온실가스 감축 실천에 나서자"고 역설했다.

이승기 공동위원장은 "지구온난화는 선진국이나 후진국, 경영자나 근로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기후변화대응을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 가장 모범적인 환경도시로 가꾸어 나가자"고 말했다.

위원들은 환경복지·경제산업·도시건축·교통수송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향후 2년 동안 기후변화 정책자문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분과별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광주시는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난 4월 10일 환경부와 시범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감축키로 했다. /정후식기자 who@

하남3지구 공공디자인 도입 조성

지식부 '지역개발' 공모 선정

광주 하남3지구 공공디자인 도입된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된다.

광주시는 23일 "최근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시행하는 '2008년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지역형 공모'에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물 디자인개발'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하남·흑석·장덕동 일대 하남산단에 인접한 61만1천㎡에 오는 2010년까지 주거·상업 등 시가지지를 조성하는 대

중 사업이다.

시는 환경친화적 이미지의 가로 공간 조성을 위해 옥의 광고물과 보도, 옹벽, 맨홀뚜껑, 가로수 보호대 등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공공시설물도 통합 이미지에 맞춰 디자인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승강장과 가로등, 벤치 등도 현재 시가 추진중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표준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디자인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억6천만원으로 오는 9월 흑석·장덕동 일대 하남산단에 인접한 61만1천㎡에 오는 2010년까지 주거·상업 등 시가지지를 조성하는 대

복지부 자활사업 평가 북구 전국 최우수기관

광주 북구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23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8 자활사업평가에서 1위를 차지, 국무총리 표창장을 받게 됐다

북구는 지난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과 자활생산물 애용운동, 공공건축물 무상대여 등 2만2천명의 저소득층 자립기반 구축 등에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다음달 5일 서울 63시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북구 관계자는 "앞으로 더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하남2지구 국민임대 아파트 청약률 90% 광주도시공사 당첨자 내달 7일 발표

광주시 도시공사(사장 김영진)는 23일 "하남2지구 국민임대 아파트 청약접수 결과 90%의 청약률을 거뒀다"고 밝혔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접수 결과 총 886가구에 대한 청약자가 794명으로 89.6%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이는 광주지역 임대 아파트의 평균 분양률이 70% 미만

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하면 높은 비율로 도시공사 임대아파트에 대한 인기를 반영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정부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무주택 세대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30년 동안 공급된다.

하남2지구 국민임대아파트는 66~

68㎡형 676가구, 79㎡형 210가구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66~68㎡형이 2천300만원에 13만8천원, 79㎡형이 2천800만원에 19만2천원이다.

최종 당첨자는 오는 8월 7일에 발표되며 입주 시기는 2009년 6월 예정이다. 공사측은 이번 청약 신청자에 대해 주택 소유 여부 전산조회와 소득금액 조회 등을 거쳐 입주자를 선

정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재공고할 계획이다.

김영진 사장은 "전 가구가 계단식 구조로 발코니를 확장해 넓은 공간을 확보했고 베란다 채시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등 가구당 400만여원의 입주자 부담을 완화한 것이 청약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Gyulakjeon Namgol-dang is here).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 and text promoting a '무등산 문명정사' (Mudeungsan Myeongjeongsa) event. The text includes details about the location,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event.

Advertisement for '가발' (Wigs) by '大山프리모님네가발' (Dae-san Pre-mo-nim-ne-ga-bal).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woman's face and text promoting '최신제품 70만원' (Latest product 700,000 won). It includes details about the quality and variety of wigs available, along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the business.